

“광주는 제게 투박하게 붙은 점토 덩어리 같아요”

광주 출신 지역 작가 수림문학상 작품명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 태국 나레수안에서 한국어 강의 2017년 5·18 신인문학상 수상



태국 나레수안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강의하는 광주 출신 지역 작가. (지역 작가 제공)

광주 출신 지역(37·본명 최지영) 작가는 최근 장편소설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으로 수림문학상(상금 5000만원)을 수상했다. 수림문학상은 차세대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수림문화재단과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제정했다.

현재 태국 방콕과 치앙마이 사이에 있는 '핏사눌록'이라는 도시에 거주하는 작가는 나레수안 대학교 동양어문화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작가는 "광주는 제게 크고 투박하게 붙은 점토 덩어리 같다"며 "이젠 광주 이외의 곳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졌지만 그럼에도 늘 고향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점토는 단단하게 붙어 있는 전부이며 그 위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어 작가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늦었지만 수상을 축하한다.

▲당선 소식을 들은 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도 설겁지 않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진짜야?'라고 질문하거든요.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소설이 세상에 나오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기뻐요.

-작품은 테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했다고 들었어. 어떻게 모티브를 얻었어.

▲오래 전부터 두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고대 히브리어나 중세 영어만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희생해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몇 년 전 두 소재를 하나의 서사로 엮으면 어떤 소설이 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고대 히브리어를 소설에 녹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과 모국어가 다른 언어로 대체된 이들의 고통을 다룬 '수키 라임즈'와 '수키 증후군'을 다룬 중편을 갖게 됐고 태국에 온 이후 '신체가 먼지로 변하는 현상'을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구요.

-전체 긴장도를 유지하며 1000매 가까운 인터뷰를 소설적 장치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해 달라.

▲인터뷰만으로 진행되는 소설은 아니고요. 방송과 신문, 잡지 기사들부터 책, 메일, 낙서, 인터넷 자료, 또 여러 사람들이 보내준 메시지 등이 소설 전반에 등장하고, 또 그게 서사를 이끌어가요. 소설을 쓰는 동안 플라자를 떠올렸어요. 인터뷰, 기사, 낙서, 메일과 관련된 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콜라주요. 콜라주를 보면 오려 붙여진 것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거대한 하나를 만들어내잖아요.

-평소 어떻게 소설 창작 공부를 했어.

▲작법과 관련된 책을 보거나 이론을 공부하지는 않고요. 그냥 읽고 생각하고 쓰고 고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첫 소설은 학부 때 소설 창작 수업을 들으며 썼어요. 근데 그때 강의를 하였던 선생님이 한창 RPG 게임 개발을 하시던 중이라 한 학기 내내 게임 시나리오 이야기 들었고, 마

지막엔 개발 단계에 있던 RPG 게임의 유저를 참가하기도 했어요.

-5·18신인문학상을 받고 난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상 이후 제 소설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마음은 잡힐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얼마 뒤 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고 큰 고민 없이 짐을 싸서요. 낯선 곳에서 마음을 다잡고 소설을 써 보자는 결심도 했지만 동시에 소설과 소설로 맺은 인연들과 멀리 지내며 이별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달라

▲태국 '핏사눌록'에서 살고 있어요. 행정구역상 도시는 맞는데 제가 일하고 사는 곳은 외곽에 있습니다. 나레수안 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어문화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또 부전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한국어 강의도 했어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

▲광주는 제게 크고 투박하게 붙은 점토 덩어리 같아요. 이젠 광주 이외의 곳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졌지만, 그럼에도 늘 고향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광주에서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점토는 이미 단단하게 붙어 있는 전부이고, 그 위에서 변화하고 있는 거니까요.

-향후 계획은.

▲제가 사는 곳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만큼 변화의 폭이 넓는데, 예상치 못했던 색깔들로 채워져요. 그 아름다운 시간 언저리에 호숫가를 걷고 달리는 걸 좋아해요. 걷고, 달리면서 또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제 이야기 고민하겠죠. 그 고민들이 모여 한 편의 소설로 피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인이 사랑하는 낭만 모음곡 광주문화재단 25일 월요콘서트



아나운서 최형욱 비올라 김주영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월요콘서트 이번 순서는 빛고을페스티벌 앙상블의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낭만 모음곡' 무대로 채워진다.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낭만 모음곡'을 주제로 열리는 콘서트는 슈만, 슈베르트, 쇼팽, 멘델스존 등 낭만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 곡이 소개된다. 슈만 '피아노 4중주 나뉘마장조 Op.47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쇼팽 '녹턴 Op.9 No.2', 차이콥스키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돈주앙의 세레나데' 등이다.

이날 공연은 바이올린 채송화, 비올라 김주영, 첼로 김은비, 피아노 권현, 바리톤 손승범이 출연하며 아나운서 최형욱이 사회와 해설을 맡는다.

빛고을페스티벌 앙상블은 2003년 '모이즈플루트 앙상블'로 출발해 2014년 빛고을페스티벌앙상블로 재 창단했으며 사회공헌, 문화기부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다음 월요콘서트는 오는 11월 1일 브라스의 'Brass in Romantic'이 예정돼 있다.062-670-792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주·차박·나홀로 여행 가을 여행 도서 인기 키워드

'국내 여행', '제주', '차박', '나홀로 여행'... 위의 단어들은 여행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서적들의 트렌드 키워드다. 무더위가 끝나고 선선해지면서 여행 관련 도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9월 도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 못지않은 경관을 자랑하는 장소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색 여행지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월 여행 베스트 셀러 1위는 '리얼 국내여행'이 차지했다. 여행자가 배낭여행이 우리나라 37개 도시, 460여 개의 방대한 여행지를 57개의 테마로 유기적으로 묶었다. 다음으로 '에이든 국내여행 가이드북' (이정기, 타블라라사), '리얼 제주' (김태연, 양정임)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럿이 모이기 힘든 상황에 따라 혼자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나홀로 여행을 주제로 한 '일상속의 고고학, 나 혼자 제주 여행' (황윤),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 (장은정)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을밤 피아노 트리오 음악의 정수를 만나다

2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윤성근·나인국·신수경 협연



'피아노 트리오의 밤' 공연이 오는 22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피아노 트리오 음악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피아노 트리오의 밤' 공연이 오는 2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성근과 첼리스트 나인국, 피아니스트 신수경이 올라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의 곡을 들려준다.

첫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5번 Op.70 No.1 유령'이다. 이 곡은 .창작력이 절정에 도달한 베토벤 중기 작품으로 비교적 가벼운 기분의 곡이지만 어둡고 신비스러운 느낌의 2악장 때문에 '유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어 라흐마니노프의 '엘레지 3중주 1번'을 연주한다. 한 개의 악장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미로운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라흐마니노프의 초기 작품이지만 그의 후기 작품에서 볼 수

는 기법과 음악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공연의 마지막은 브람스의 실내악 곡 중 가장 명량한 곡인 '피아노 트리오 1번'으로 장식한다. 이 작품에는 청년시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브람스의 삶의 궤적이 담겼다.

한편 현재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신수경은 서울대 음대 및 동대학원과 미국 일리노이 음대 석사, 인디애나 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윤성근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연주자과정과 로스톡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광주챔버오케스트라 리더로 활동중이다.

나인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등을 졸업했으며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전석 초대. 문의 062-530-012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R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 흥 지 사 010-2548-7111
나 주 대 리 점 010-3626-3848
장 성 대 리 점 010-2819-3546
전 남 동 부 권 역 010-2450-1954

광 양 대 리 점 010-5355-1292
함 평 대 리 점 010-2602-6051
광 주 · 영 광 010-3925-2181
전 남 서 부 권 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